

[목회자 모임] 뛰어난 이름

2018. 6. 29. 이현래 목사님

히브리서 1장에서 중요한 말씀이다.

[히브리서 1:1~3]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날에는 선지자나 또 다른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 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이 때는 아들로 말씀 하셨다. 예전 성경(개역한글)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번역하였다.

신약은 아들로 말씀하는 시대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시대라고 하면,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으로 말하는 시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말한다는 것이 없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도 없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한다. 이것이 아들로 말한다는 뜻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한다. 이것이 신약이다. 아주 간단하게 구별하면 그렇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구약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은 신약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예수님 말씀은 다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는 곳은 거의 없다.

사도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데는 거의 없다. 거의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다. 엄청난 것이다. 전에는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전달하는 우편배달부라면, 신약은 우편배달부가 아니라 내가 편지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혹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은 떡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심비에 쓴 것이다. 이것이 신약이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말로 전해야 된다. 자기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전할 수가 없다.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다는 말은 구약시대이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내 생명이 되어서 말할 때는 그것이 새 언약의 시대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빌리그램함이 설교할 때마다 ‘성경이 말하기를’, ‘Bible says’ 이렇게 말했다. 성경이 말한다는 것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에 설교할 때 내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해 달라고 많이 했다. 자기는 전달자라는 뜻이다. 이것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미덕이 아니고 구약시대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이다. 그 말이 내 말이 되어야 된다. 내가 소화되어서 내 말이 되어야 그것이 신약이다.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든 것처럼 생콩을 그냥 물로 삼키면 내 뱃속에 들어가기는 가지만 내 생명이 되지 않고 도로 콩으로 나온다. 우리는 이것을 2천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다.

종교개혁을 해도 마찬가지이고,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차라리 카톨릭 시대에는 교황이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더 비구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의 권위만 계속 높여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라고 늘 그렇게 해왔다. 이것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셨다.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기 때문에’라고 말하면 또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내 속에 소화가 되어서 내 살과 피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안 된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우편배달부에 불과하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떡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

직 육의 마음판(심비)에 쓴 것이라(고후3:3).”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편지를 전하는 자신이 편지여야 된다.

바울의 말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는가?

베드로의 말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가?

구약 같으면 안 된다. 여호와와 말씀이 따로 있고 바울의 말씀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이 말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다. 이것이 신약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가졌으므로 그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된다. 바울이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바울이 말한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오늘 사역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그러면 바울과 오늘날 사역자가 다르다는 말이다.

초창기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내가 된 것만 말하니까 성경의 몇 구절이 없다. 봐도 안 되니까 성경을 거의 보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되었는데, 그것만 해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다. 늘 같은 말을 한다고 해도 내게는 전혀 수고로움이 없다.

전에는 내가 모르는 말을 하니까 힘이 들었다. 지금은 내가 아는 말을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말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말한다)(요4:22).”라고 하셨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면 아주 쉽다. 늘 말해도 수고롭지 않다. 내 말을 하는 것이니까 늘 말해도 진력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때로는 선지자로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까지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이 아들의 말이고, 아들의 말이 아버지의 말이다.

개가 짖는 것을 보면 어미개가 짖는 것이나 새끼개가 짖는 것이나 똑같다. 다 개 짖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아버지 말이나 아들 말이나 같은 말이다. 왜? 생명이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다.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서 삼았다는 것이다. 만유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이어 받을 자로 삼았다.

내가 우편배달부에게 무엇을 맡기겠는가? 편지 전하라는 것밖에 맡길 수가 없다. 내 재산을 맡기겠는가? 무엇을 맡기겠는가? 연애편지를 보내는데 우편배달부에게 보내는 것과 내가 가는 것은 다르다. 우편배달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대신 가서 대신 사랑해주라고 하겠는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모든 것을 아들은 상속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이다. 그 말은 생명의 상속자라는 말이 된다. 하나님을 대신할 자로 쓰이게 된다.

우리가 서는 자리는 놀라운 자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할 자리에 선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자리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나 영광이 없다. 아무 것이나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남의 일을 가지고 할 수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할 수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뭘 하겠는가? 연애편지 속에 내용이 들어있으면 뭘 하겠는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본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도 우편배달부 노릇을 하고 있다.

신학공부를 하면 옛날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귀찮아졌다. 모두 자기 말이 아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고 귀찮고 복잡하다. 간단한 이야기를 너무 복잡하게 하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 너무 쉬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러이렇게 말한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하늘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어느 누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운반해 와서 나에게까지 운반해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 너무 쉽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참람하다고 했다. 어떻게 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하느냐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니 참람하다고 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왜 죽으셨는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 문을 열어주

시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하는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축복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다. 구약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시편에서 다윗이 영감 속에서 어찌다가 하는 말이지 일반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은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고 하느냐?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

가장 큰 죄목이 참람죄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친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형 죄목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핍박 받을 일이 전혀 없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랬으면 누가 핍박 하겠는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물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예수를 죽인 일이 없다고 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바로 유대인적인 그것이 예수를 죽인 것이다.

편지 배달부들이 편지이신 분을 죽였다. 편지를 배달해야 되니까 귀찮다, 나는 배달부인데 너는 어떻게 편지냐?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계라는 말은 세대라는 뜻이다. 아이오노스라는 말이다. 모든 세대를 지었다는 말도 이끌었다, 결론을 지었다, 열매를 맺게 했다는 뜻이다.

이 세대들은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 모세의 세대를 말한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 한 세대, 아이오노스라는 세대를 말한다.

왜 예수님이 그 세대들을 마무리하는가? 또 결론짓게 되는가?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 말이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8:57,58).”고 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서 가는 세대이다. 아브라함이 갈대

아우르에서 나와서 이러 저렇게 해서 헤브론까지 간다. 마지막에 100살에 되어서 이삭을 얻는다.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얻는 그 과정은 예수께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를 두고 가는 길이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이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께로 가고 있는 길이다.

경부선을 타고 부산을 간다. 부산이 나보다도 더 먼저 있다. 나는 부산을 지금 찾아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세대는 그 세대가 몇 년인지는 모른다. 성경에 100살이라고 했지만 그 세대가 아브라함 시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세대를 산다. 왜? 내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100살이 되도록 간다. 우리도 다 100살까지 간다. 이스마엘도 낳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가게 된다.

여러분은 이스마엘을 낳아보지 않았는가? 목회하시면 특별히 이스마엘을 많이 낳게 된다. 이삭을 낳은 줄 알지만 이스마엘을 낳고 있다. 이것을 되풀이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삭을 낳으러 가고 있다. 아브라함의 길은 이삭을 낳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그 이삭을 낳기 위해서 가는 길은 곧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 이삭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삭이 먼저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다. 이삭을 낳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그런 뜻이다. **세대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런 길을 갔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엇 때문에 왔는지가 아무것도 없다.

자기 판에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고 따랐다. 그리고 100살이 되었다. 아무 것도 없다. 만일 이삭을 낳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살아온 일이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를 모른다.

왜 100살까지 있었는가? 참 허망한 일도 많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와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다. 집안은 시끄럽게 되었다. 그러고 나니까 나이는 100살이 다 되었다. 뭘 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똑같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놔두고, 믿는 사람을 생각하고 더구나 사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히 했지만 어느 날 가보면 아무 것도 없다. 열매가 없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른다.

내가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 만일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8년 동안 살았는가? 답이 없다. 싸움만 진탕 하다가 나왔다.

나는 내 인생에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남과 싸울 것이라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목회를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만 잔뜩 하다가 끝났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나에게 자서전을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겠는가? 하나님에게 부름 받아 가서 이런 일로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가 끝났다고 하면 뭐가 되는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는 이 말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를 열매 맺게 했다, 마무리 했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야 나를 위해서 불렀구나. 심지어는 실수한 것까지도, 실수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까지도 이삭을 낳기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이 된다.

나는 지금 생각할 때 그렇다. 전에 하던 일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된 일이 많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상하게 다른 길로 왔다. 만일 내가 거기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C.C.C.에 올 일이 없다. 그리고 C.C.C.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대구에 올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나도 잘못된 것이 있고 그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 교단을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불드셔서 다시 C.C.C.로 보내셨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있게 된 동기가 되었다.

내 실수까지라도 내 잘못까지라도 하나님 경륜에 이용이 되었구나. 쓰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잘해서 나는 항상 의롭고 남은 불의했던 것이 아니고, 나도 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나만 이렇게 왔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나와 싸웠던 사람들은 다 형편없이 돼버렸다. 박살나고 말았다. 나만 어떻게 새로운 길로 오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나는 그 말이 왜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내가 잘하기만 해서 선을 이룬 것이 아니다. 나는 모르고 최선을 다하지만 뒤로 생각해보면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잘못해서 일이 커졌구나,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커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지금 여기에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이 커졌다. 분명히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망하고 나는 흥했다. 지금 내가 해석해 볼 때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구나 한다.

나는 목회를 하러 나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너무나 감사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일이 망가졌다. 지금도 그 이유는 분명히 모른다. 아무튼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전혀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

우리 말 속담이 맞다. 아니 뎨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그 말이 맞다.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좋은 길로 자꾸 바꾸어 가셨다.

아브라함이 만일 그때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이삭 비슷한 것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비슷한 것을 이삭이라고 잘못 착각하게 된다.

그런데 완전히 구별이 되었다.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갈이 갑자기 위상이 높아져서 사라를 무시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사라가 기세가 등등해져서 저런 여자를 내보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참 곤란하게 되었다. 자기가 저질러서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죄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만 쫓겨나게 되었다. 얼마나 난감했겠는가?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을 했다. 성경에 보면 고민한 흔적이 나온다.

다음날 아침에 가족부대에 물과 먹을 것을 넣어서 내보낸다. 그들은 비참한 길을 걸어갔다. 모자가 광야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에 왔습니까? 주인이 오라고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아브라함도 고민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보내라. 사라의 말이 옳다. 사라 편을 들어주셨는데, 사라 편을 들어주신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면 영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다. 하갈이 먼저 시집을 오겠다고 했는가? 아니면 주인과 간음을 했는가? 좋은 주인이 오라는 데로 오고 가라는 데로 가는 것이 좋다.

하갈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스마엘도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다면 이 일은 영망인 것이다. 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다. 이삭을 목표로 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이삭을 얻은 후에야 뒤로 돌아 볼 때, 이 아들을 주려고 이렇게 했구나. 100살에 아들은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만일 내가 100살 전에 아들을 낳았더라면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100살에 아들을 얻었으니까 아무리 해도 자기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갈 때는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와 아주 대조적이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잠을 못자고 고민했지만 이삭을 데리고 오라가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천연스럽게 갔다. 사환에게 장작을 지워서 천연스럽게 간다. 이삭이 묻는다.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갈 때는 너무 다르다.

이삭은 정말 귀한 아들이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 그 아들이 필요하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세대를 마무리해 준다.

지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대를 결론지어 주었다. 마무리해 주었다.

이삭은 또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

이삭의 일생도 우습다. 마지막에 축복 할 때는 눈이 어두워서 거꾸로 축복한다. 손을 만져보더니 손은 예서의 손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노망이 나서 축복한 것이다. 그 노망끼가 난 영감님이 하신 일이 어디서 열매를 맺는가?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니까 대답이 된다.

왜 이렇게 거꾸로 축복을 했는가가 대답이 된다. 왜 눈이 어두워서 몰랐는가가

대답이 된다.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의 대답이다.

내 인생의 대답이다. 내 인생의 걸어온 모든 길을 놓고 볼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답이 안 된다. 왜 그런지를 모른다.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다 그러리라 생각한다. 잘 생각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세대, 나도 내가 살아온 세대가 있다. 그 세대들을 그리스도께서 마무리해 준다. 열매를 맺게 해준다.

지금 한창 여름이 되어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것은 열매들을 성장 시키느라고 그렇다. 가을에 사과 밭에 오면 이파리는 없는데 사과만 잔뜩 열려있는 나무가 있다. 이파리 없이 사과만 열렸으니까 나는 참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햇빛을 얼마나 잘 받겠는가.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잎이 없이 사과만 열려있으면 병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맛이 없다고 한다. 사과 한 개에 잎 몇 개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최소한의 잎이 몇 개가 있어야 사과가 정상적인 사과가 된다고 한다. 잎이 자라고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자라고 있는가? 열매를 위해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꽃이 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이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다. 열매가 없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니까 마치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과 매 한가지이다.

열매 없는 인생은 저주 받은 인생이다. 저주가 따로 없다. 아브라함에게 만약 이삭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인가? 큰 강을 두 개나 건너와야 된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2대에 걸쳐서 왔다. 아버지 데라가 나와서 하란에 와서 죽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2대를 걸쳐서 들어온 땅이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왔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 맨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땅이다. 이삭이 아니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세계(세대)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당연히 하나님 경륜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마지막 대답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rhema)**’이다. 위에서 있던 두 번의 말씀은 보통 말을 한다, 전한다는 뜻이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다. 이 “**능력의 말씀**”은 레마이다. 이 레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도 이 레마를 썼다. 그냥 로고스(logos)가 아니다.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레마는 유동적이다. 그때그때 나오는 말이다. 어원을 찾아보니까 ‘to flow’이다. ‘레오’라고 할 때는 ‘to flow’, 솟아나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레고’할 때는 해석한다는 뜻이 있다.

레마는 내게서 솟아나오는 말인 동시에 해석되어져서 나온 말이다. 로고스가 아니고 해석되어진 말씀이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이다. 로고스는 책을 보면 항상 있는 말씀이다. 누구나 보면 읽을 수 있는 것이 로고스이다.

레마는 누가 하는가? 그 로고스가 소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 해석되어야만 할 수 있다.

사역자는 누구인가? 이 로고스가 해석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로고스대로 전달하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다.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전하면 사역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오죽 답답하면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만 쪽 읽고 내려간다고 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것이 진짜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딱 본문 설교만 한다고 한다. 해석을 가능한 한 하지 않기 위해서 주석 설교만 한다고 한다.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뭘 붙이면 잘못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배달부 밖에 안 된다.

소화해서 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을 해야지 성경책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얘기 가운데에 참 재미있고 우스운 얘기가 있다. 어떤 사람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데, 기도를 하여 성령을 받아서 다른 글자는 모르는데 성경책 글자는 다 안다는 사람이 있다. 참 신기하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책을 다 읽는다고 한

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아이들이 클 때 보면 동화책을 읽어주면 외워버린다. 글자를 모르지만 그 페이지를 넘기면 그 이야기를 한다. 아이들이 꼭 글자를 아는 것처럼 읽는다.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세상에 신기한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에 잘못 취하면 곤란하게 된다. 옛날에는 그런 일을 사모했다. 그런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다.

한 말씀을 알더라도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소화가 되어야 된다. 내 삶과 피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내가 말한다면 어떤 경우에 가도 다 경우에 맞게 이야기하게 된다.

법만 가진 사람은 여기에 가도 그 법, 저기에 가도 그 법만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레마를 가진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형편이 다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하셨다. 율법의 일점일획이라고 범하면 안 된다고 하시고, 자기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

왜 안식일을 범하고 일을 하느냐고 하니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성경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고 대답을 한다. 언제는 이렇게 말해놓고, 언제는 또 저렇게 말한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것처럼 들린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은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내가 레마로 말할 때는, 로고스가 내 속에서 소화되어서 레마가 될 때는 이 사람에게는 된다고 하고, 저 사람에게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일인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게 된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말은 두 가지로 하게 된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자님도 마찬가지로이다. 대가들은 다 마찬가지이다. 분명히 잘못된 줄 알지만 그 사람은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옳기는 옳지만 손을 들어주지 않아도 죽지 않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

겠다는 손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둘이 싸우다가 내기를 하고 왔다. 만약 내가 틀리면 죽겠다고 맹세하고 왔다. 공자님 앞에서 판결을 해달라고 했다. 공자님이 들어보더니 죽어버리겠다는 사람을 옳다고 해주더라는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당연히 잘못된 놈인데 왜 그 놈을 옳다고 해주느냐고 성질 급한 안희가 물었다. 공자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놈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죽을 텐데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한다. 여기에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 가서는 저 말한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완전히 사기꾼같이 보인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어서 내 생명이 되었을 때, 'to flow', 솟아나오는 말이다. 능력의 말씀은 그 말이다.

“만물을 붙드시며.”

붙드시며는 보존하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가면 참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가면 아주 저주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사람에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만물을 보존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우리가 되게 한다, 옳게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 4:4).”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탄하고 원망한다.

어제도 누가 왔는데, 자기를 너무 좋다고 하던 어떤 자매가 지금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 루퍼스라는 자기면역질환인데 자기 안에서 자기끼리 싸우는 것이다. 통증이 엄청나서 약을 쓰면 둘이 싸우지 못하게 하려니까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른 병에 걸리는데 대상포진이 또 왔다고 한다. 대상포진이 무지하게 아픈 병이다. 아프니까 막 원망을 한다고 한다. 자기를 보고 원망을 하니까 가기가 두렵고 무섭다고 한다.

어찌해야 되느냐고 왔다. 하나님 노릇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지극히 좋다는 사람이 지극히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너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좋다고 했으니까 너밖에 원망할 데가 없지 않느냐? 네가 더 낫지 않느냐고 했다.

가면서 내가 더 낫다고 하니까 더 들어봐야 되겠다고 했다. 그 사람이 오죽하면 자기가 제일 좋다는 사람에게 원망을 하겠는가?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다.

전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해 보았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와서 원망을 한다. 처음에는 내가 놀랐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어찌하든지 잘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원망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것이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의 불만을 토하고 있구나. 자기가 지금 안 되니까 자기를 원망하지는 못하니까 나에게 와서 원망을 대신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노릇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개신교를 특별히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한다고 비난하지만 하나님 노릇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자기가 안 되면 나를 절대적으로 믿던 사람이 나를 절대적으로 원망한다. 사람도 제일 안 되면 자기 부모를 원망한다. 나를 왜 세상에 낳았느냐고 한다. 자기가 잘못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서 괴로우면 부모를 원망한다. 잘되면 지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말이다.

마지막 원망은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원망한다.

제일 어려운 일이 하나님 노릇하는 일이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편하다. 나를 무시한 사람은 나를 원망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나를 정말로 존경한 사람이 나를 원망하면 감당하지 못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이놈을 봐도 저놈을 봐도 다 수용이 된다. 아무리 독한 것도 약으로 변한다. 어떤 것을 쓰면 다 약으로 변한다. 부자가 큰 독이 있는 약이다. 먹으면 바로 죽는다.

옛날 사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요즘 같으면 사약이 독한 것이지만 옛날에는 사약이 고급이다. 인삼, 부자, 반하, 최고급의 약재를 넣어서 먹으면 바로 죽는다. 사약이라는 것을 아무나 먹지 못한다.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는 것이지 일반 죄인에게 사약을 주지 않는다. 때려서 죽이거나 목을 베어서 죽인다. 대

신들을 대우하느라고 사약을 주는데, 최고급 가장 비싼 약이다.
부자를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다. 독을 순화시킬 때 돼지기름을 넣거나 검은 콩을 넣어서 같이 삶으면 부자 독이 중화된다고 한다.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 중화시켰기 때문이다.

“능력의 말씀”이 모든 것을 중화시킨다. 세상에 별 것이 다 있다. 죽이는 것도 있고 살리는 것도 있고 별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중화시켜 준다. 살리는 것으로 바꾸어준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찬송할 때, 좋은 것만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불행한 것을 가지고 반대로 찬송하게 된다.

찬송가에 ‘평안해, 평안해~’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의 유래가 그렇다. 어떤 사람이 아내와 아이들 2~3명과 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다. 자기는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고 식구들만 여행 선에 탔다. 그런데 그 배가 침몰되어 식구가 다 죽었다. 그 바다를 다시 가면서 지은 노래라고 한다. 최악의 비극인데 거기서 가장 감사하는 찬송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중화시켜 준다. 증보자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소화가 되면 독이라도 약으로 중화시켜 준다. 사탄이 깔아놓은 독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화되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잘 될 때 나온 것이 아니다. 전부 쫓겨 다닐 때, 아들에게 쫓겨 다닐 때 나온 시들이다.

아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쳐오는데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다윗의 마음을 거기서 읽을 수 있다. 누군가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어떻게 해서 나무에 목이 걸렸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다윗의 부하가 쫓아가다가 대박이다 싶어서 목을 잘라서 갔다.

압살롬의 목을 쳐서 가는데 대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압살롬의 머리를 내놓으니까 다윗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그리고 목을 잘라온 놈을 상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했다. 적의 목을 잘라 와도 앞뒤를 보고 잘라 와야 되는데, 다윗에게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되게 된다. 모든 것이 다시 해석되게 된다.
이 지위가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에게만 원래부터 주어졌던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지어 놓았다.

우리가 다 바탕은 그렇게 생겼다. 그런데 뭘 잘못 먹어서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알고 보면 사람이라는 말이다. 예수님 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은혜가 안 된다. 내가 이 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큰 축복인가. 천사보다 뛰어난 사람의 말을 예수님 혼자에게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주어진 지위를 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에는 항상 천사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이 있다. 선악과를 왜 먹었는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마귀가 부러웠기 때문에 먹었다.

마귀가 뿔을 달고 왔으면 먹었겠는가? 마귀는 천사이다. 천사가 이탈하여 마귀가 되었다. 인간이 볼 때, 아담이 볼 때, 신이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부러운 존재이다.

아담이 볼 때, 마귀라고 표현된 그것은 신이다. 사람이 제일 열등감을 가진 것이 신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기한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다닌다. 능력이나 기적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자기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

나도 처음에 목회하러 나가니까 딱 그 자리에 걸렸다. 몇 년 간 그것 때문에 헤맸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것이 있는 것이다. 옛날 목회자들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오순절적인 은사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목사이다. 그때 그 교회가 서대문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와의 거리가 걸어서 15분밖에 안 되었다. 가보면 놀랍다. 난리이다. 참석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오면 썰렁하다. 사람 숫자도 물론 그렇지만 7~8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썰렁하다.

속으로 내가 저렇게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교인들은 데리고 저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양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다. 형편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저렇게 넘치는 곳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서 썰렁하게 앉아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막 쫓아 다녔다. 삼각산도 갔다.

내가 돌아다닐 산이 아닌데 그때는 죽자 살자 다녔다. 그런 도전을 받으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겠는가? 이래서 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했다.

나와 보니까 이렇다. 우리도 그런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하겠다. 여기에 오순절 집회가 있으니 올라오라고 하니까 대번에 올라왔다. 나는 몇 달째 정성을 들이고 있는 데도 전혀 소식이 없는데, 이 친구는 앞자리에 앉더니 그날 당장 대번에 방언을 한다. 내가 질렸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때는 참 암담했다. 너무 암담했다.

이상한 곳이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이 다녔다. 죄 타는 냄새가 난다는 곳까지 갔다. 왜? 내가 되고 봐야 되니까 맞느냐 틀리냐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성경을 보고 따지고 할 것이 없었다. 현실에 다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포기를 했다.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접고 살다가 C.C.C.에 들어갔다. C.C.C.에 가니까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훨씬 열심이고 일도 잘했다. 여기도 그렇구나. 이 생각이 또 들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도를 믿고 살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항상 내 속에 그 열등감이 깔려 있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천사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3:6).”는 그 말을 들었다.

은사만 받으면 한글을 몰라도 성경을 줄줄 읽는다고 한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착착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겠는가? 어렵도 없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도 저것도 다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예수 안으로만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다. 열등감이 없어지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하다. 지금은 천사가 전혀 부럽지 않다.

내 속에 그런 잔재가 완전히 없어졌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에게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싹 사라졌다. 사람이구나.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이 여러분의 말인 동시에 내 말이고, 예수님 말인 동시에 내 말이다. 성경 말씀이 좋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이 너무 좋

다.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는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할 것이다. 이 주가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말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히1:10,11).”

하늘도 멸망할 것이라고 했다. 하늘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주는 영존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지위를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왜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가? 왜 인간의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좋은 위임을 우리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이 위임을 다시 받으려면 내 위치가 회복되어야 된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뛰어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안 되면 다시 위임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 자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위임이 내 것이 될 수 없다.

아담이 그 위임을 받고 싶지 않겠는가? 이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다. 존경은 될지언정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해도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과 관계된 것이지 그 위치를 벗어난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위대한 사람도 많고 놀라운 사람도 많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다. 종교적으로 위대한 사람도 하나도 부럽지 않다.

누구에게 이 위임이 있는가? 이것이다.

누구에게 이 위임이 회복되는가? 이것이다.

예수는 왜 있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가? 나를 그 위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다른 성인들에 비해서 더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나되게, 나를 그 원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자리이다. 내가 이것이 아니면 할 말이 없다.

모든 사람이 위치만 회복된다면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위치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서 우리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는가? 위치만 회복되면 바로 즉시로 이 위임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만해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긴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